



문 : 일본 뇌염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있어 특히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 : 금년은 예년에 비해 일본 뇌염 모기가 급증하고 있어 뇌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뇌염은 대략 5년을 주기로 유행하고 있어 금년 여름엔 다발생활 우려가 높다.

전염 경로를 보면, 일본뇌염 또는 일본B뇌염이라 명칭하고 있는 본 질병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모기에 의하여 인체에 전염되는 것이다. 이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모기가 잘 서식하는 농촌지역이 많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 농촌 또는 도시 주변지역이다.

뇌염에 걸린 사람의 피를 빨 모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중폭숙주 : 돼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15세이하의 아동과 소아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잠복기는 1~3주 정도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섭씨 39~40도의 고열이 나타나고 의식, 정신, 수면의 장애가 오며 몸이 노곤하고 기민상태, 혼수상태를 가져오고 불안, 흥분, 헛소리, 현각등을 나타내기도 하며 두통, 구토, 목이 뻣뻣해지기도 한다.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후유증을 가져오는 일이 많은데 후유증으로는 지각장애, 운동장애, 성격변화, 간질발작, 수면장애등이 따른다. 후유증은 생존자의 1/3정도에 남는다.

사망율을 보면 뇌염의 유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세 미만의 영아와 노인층에서 높으며 치사율은 5~20% 정도다. 사망은 발병 4~8일에 가장 많으며 사인은 호흡마비, 순환장애, 폐렴등이다.

치료는 대증요법분이며 특수치료법이 없다. 특히 영양공급, 수분, 전해질 평형유지에 힘써야 된다.

치료법이 확실치 않은 만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뇌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다.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장좋은 방법은 모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한다.
2. 뇌염 예방 접종을 해야한다.
3.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건협 서울지부 부속의원장 이증범 박사>